

존 오스왈트 박사, 킹스, 세션 21, 1부

열왕기하 8-9장 1부

© 2024 존 오스왈트와 테드 힐데브란트

안녕하세요. 우리는 열왕기서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역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약간의 모퉁이를 돌기 위해 오늘의 연구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지난 두세 세션 동안 엘리사의 사역을 특별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긍정적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모든 것의 결론에 도달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시작하기 전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시간이 당신 손에 달려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우주를 다스리는 분입니다. 당신은 사랑이신 분입니다. 우리의 손을 잡고 있는 사람이 사랑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기쁘지요.

우리에 대한 당신의 모든 관심은 우리의 최선을 위한 것입니다. 당신을 칭찬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격변을 봅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봅니다. 우리는 문제를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 주님, 다시 한번 당신이 통제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우리를 위해 선택하는 것에 맞서 우리가 선택한 결과인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당신이 그러한 일들에 굴복하지 않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반란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실패는 당신이 처리하고, 통제하고, 사용하고, 궁극적으로 축복할 수 없는 문제를 당신에게 제시하지 않습니다.

당신을 칭찬합니다. 오늘 이 성경 구절을 보면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가 그 진리, 그 영원한 진리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오늘날 우리 각자를 위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당신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8장 7절부터 9장 13절까지를 봅니다.

그리고 그들은 두 번의 약속으로 예약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에서 엘리야가 완전히 우울하고 생명에 대한 두려움으로 도망쳤을 때 하나님께서 “아니요, 아니요. 나는 아직도 당신을 위한 사역이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세 가지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나는 당신이 시리아 왕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주기를 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시리아는 갈릴리 바다 북동쪽에 있는 다마스쿠스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시리아 왕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왕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주십시오. 그리고 엘리사에게 전화해 보세요. 많은 학자들은 엘리야가 이 세 가지 일을 하지 않았다고 궁금해합니다.

그는 그 중 하나만 했습니다. 그는 엘리사에게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는 단지 엘리사를 불러 자신을 따르도록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실패했는가? 글썄요, 제가 여러 번 말했듯이, 우리는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데 조금 조심해야 합니다. 성경은 그가 실패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에 대한 심판의 느낌은 없습니다.

반면에, 성경은 그가 정확히 그렇게 해야만 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음으로써 그가 해야 할 일을 엘리사에게 분명히 가르쳤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추가적인 지시를 주시는 이 구절에는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단순히 그것을 수행합니다. 사실 엘리야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그 때가 차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이중 사역은 엘리야의 사역과 나중에 엘리사의 사역이 아니며, 하나는 더 좋고 하나는 더 나쁘다.

아니요, 저는 그것이 단일한 사역, 엘리야-엘리사 사역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헤이즐과 예후라는 두 가지 임무를 수행하면서 그는 그들의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시리아 왕 하젤의 임명을 살펴보겠습니다.

7절에 보면 엘리사가 다메섹으로 가는데 아람 왕 벤하닷이 병들었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 말을 들었을 때 우리가 여기에서 한 말을 기억하십시오. 엘리야와 엘리사는 대체로 선지자라고 불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불립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더 깊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지자는 일종의 직업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그들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는 헤이즐에게 선물을 가져가라고 말했습니다.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라.

그를 통해 여호와께 여쭙어 보십시오. 그에게 물어보세요. 제가 이 병에서 회복될 수 있을까요? 벤하닷이 자신에게 낫신 신에게 조언을 구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입니다. 아하시야가 이방 신인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문의하려고 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지금 이 경우에는 이방 신이 다메섹에 이르렀느니라. 나는 이것이 벤하닷이 엘리사와의 만남과 수년에 걸쳐 엘리사와 그의 군대와와의 만남에서 몇 가지 교훈을 배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지 가서 물어보고 물어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사엘은 낙타 40마리에 다메섹의 가장 좋은 물품을 선물로 가지고 엘리사를 만나러 갔습니다. 이럴 수가. 그가 들어가서 그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벤하닷이 나를 보내어 내가 이 병이 낫겠느냐 물었느니라

하니 이제 엘리사가 그에게 대답합니다. 그는 그렇습니다. 그가 확실히 회복될 것이라고 그에게 말하십시오.

그러나 주님께서서는 그가 실제로 죽을 것이라고 나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여기 누워 있습니까? 그는 진실을 왜곡하고 있습니까? 사실, 나는 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벤하닷은 혼자 내버려두면 회복될 것이었습니다.

이 질병은 최종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말하지만 나는 그가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나는 이것이 Hazel이 왜 그런 일을 했는지에 대한 이해를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사엘이 다음 날 베개를 적셔서 벤하닷의 얼굴에 얹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렇습니다. 혼자 있었다면 벤하닷은 회복되었을 것이고 하사엘은 왕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벤하닷은 헤이즐이 그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죽을 것입니다.

그는 헤이즐이 당황할 때까지 고정된 시선으로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이것은 11절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람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무엇을 할 것인지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하려는지 알겠습니다. 3장에서 이에 대해 조금 이야기한 것을 기억하세요. 엘리사는 너희가 모압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당신은 모든 우물을 멈출 것입니다. 당신은 모든 들판을 돌로 덮을 것입니다. 당신은 모든 좋은 나무를 베어버릴 것입니다.

와, 그게 그렇게 해야 하는 방향이었나? 아니요, 엘리사는 단지 당신이 그렇게 하려고 한다는 것을 인식했을 뿐입니다. 확실히, 그것이 그들에게 실제로 의미를 부여했을 수도 있습니다. 뭐,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괜찮습니다.

나는 그것에 대해 논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엘리사는 헤이즐에게 이런 일을 하라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그는 단순히 미래를 볼 수 있는 사람이며, 나는 당신이 무엇을 할지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당신은 그들의 요새에 불을 지르게 될 것입니다. 당신들은 그들의 청년들을 칼로 죽이고 그들의 어린아이들을 땅에 매어치며 임신한 여자들의 배를 찢을 것입니다. 이제 13절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이 헤이즐이 말하지 않는 것과 그가 말하는 것을 알아차리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지만, 남자의 표식입니다. 개에 불과한 당신의 종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히브리어 성경에 나오는 개는 인간의 가장 친한 친구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단순히 독수리와 같습니다. 그들은 썩은 고기를 먹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사회의 변두리에 맴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어린 아이를 거리에 남겨두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개들이 아이를 잡아먹을 것입니다. 나는 단순한 개입니다. 나는 보잘것 없다.

내가 어떻게 이런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었을까? 그는 “내가 어떻게 그런 악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내가 어떻게 그런 끔찍한 일을 할 수 있었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아무 것도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그런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지? CS Lewis는 자신의 저서 중 하나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요. CS Lewis가 아닙니다. 소설가 패트릭 오브라이언입니다.

사실 사람은 인간에서 시작해 캐릭터가 된다고 한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미래의 사람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결국에는 하나님의 기적 외에는 우리가 스스로 만든 것 외에는 아무것도 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누군가 되어가고 있나요? 당신은 자신을 누구로 만들고 있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고 계십니까? 당신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당신은 기도하며

살고 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되고 있는 성품을 형성하시도록 허락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호와께서 네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나에게 보이셨느니라.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는 주님께서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시거나 주님께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가는 선이더군요.

무언가를 아는 것과 무언가를 명령하는 것 사이의 미세한 경계. 그래서 헤이즐은 기회를 보았습니다. 그는 돌아갔다.

엘리사가 당신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헤이즐이 대답했다. 그는 당신이 반드시 회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혼자라면 그는 그랬을 것입니다.

그리고 헤이즐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헤이즐이 왕이 되려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합니다. 어머.

다시 말하지만, 단순히 우리의 삶을 우리 손에 맡기는 것과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손에 얹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것을 신뢰하는 것 사이에는 아주 미세한 경계가 있습니다. 헤이즐은 전자를 선택했습니다. 나는 그것을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음 왕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그는 또한 이 노인이 영원히 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글쎄, 난 그렇게 기다릴 여유가 없어.

문제는 내가 직접 해결하겠습니다. 당신과 내가 얼마나 쉽게 그렇게 하는지. 아시다시피, 범선인 배가 항구를 떠나려고 할 때, 바람이 가볍고 가변적일 때,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조수가 바뀌고 썰물이 시작되는 순간을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때가 당신을 부두에 묶고 있는 밧줄을 풀어주고 조수가 당신을 바람이 더 많이 부는 바다로 데려가도록 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흐름을 따라잡아야 할 순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고 조수를 놓치면 다시 물이 나올 때까지 12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아, 당신과 나는 얼마나 쉽게 그 구렁텅이에 빠지는가. 아, 이게 기회다. 지금 해야 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당신의 기회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난 너랑 같이있어. 갑시다. 그러나 하나님은 종종 이와 반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걸 눈치채셨나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니라 그분이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일을 순서대로 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그럼 다시 헤이즐, 내가 다음 왕이 될 거예요. 이 노인은 영원히 살 것이다.

그를 죽여. 하나님은 그가 그렇게하기를 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그가 벤하닷을 죽이기를 원하셨는가? 다시 말하지만,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조금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엔 하나님께서 헤이즐에게 야훼를 믿게 하신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갖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헤이즐이 누구인지 아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행동으로 그는 회복할 것이고 당신은 다음 왕이 될 것입니다. 제임스는 우리가 전에 이것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임스는 감히 하나님이 당신을 유혹했다고 말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감히 하나님께서 당신을 유혹하여 악을 행하게 하셨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반면에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시험을 설정하십니다.

우리가 실패할 수 있는 테스트. 그래서 나는 헤이즐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나에 대해서는 알고 있고 당신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를 믿을 것인가? 그를 기다릴 것인가? 그분의 인도를 따르시겠습니까? 쉽지 않다고 하시네요.

그는 전보를 보내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실이다. 그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최선을 다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를 어디로 데려가시는지 확실히 알기 전까지는 나는 움직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의미는 매우 명확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다소 모호할 수도 있지만 결국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의 말씀에 기초하고, 다른 사람들의 조언에 기초하고, 나의 내적 인상에 기초하여 이 모든 것이 합쳐졌습니다.

나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 아, 기다려요. 좀 기다려.

그래서 하사엘이 시리아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책의 다음 장에서 우리는 헤이즐이 점점 더 강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심지어 예루살렘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아, 이스라엘의 죄는 벌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내 도구 중 하나는 Hazel입니다. 그리고 확실히, 그것이 곧 일어날 일입니다.